

「논리학이란 무엇인가」와 「사고과정의 이해」강의페어링

심리학과 2학년 홍윤희 201421858, 송하석 교수님 지도

페어링, 무엇을 했나?

〈논리란 무엇인가〉에서 논리적 오류들에 대해 배웠다. 이 강의의 목표는 논리적 오류들을 범하지 않도록, 또 글에 있는 오류들을 찾아서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반면에 〈사고과정의 이해〉에서는 인간 사고와 판단이 항상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은 아니고 인간의 사고의 목적이 반드시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은 아님을 배웠다. 페어링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나 토론에서 논리적 오류들을 범하게 되는 이유를 심리학적으로 해석해보고, 오류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탐구해보았다.

위대한 논리학자의 이론에 대한 역설 - 친숙함이 주는 함정, 전문가의 맹점.

프레게의 논리주의, 러셀의 역설로 무너지다.



프레게는 수학이 논리학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논리주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이를 증명하고자 했다. 그러나 ‘자신을 포함하는 모든 집합’이라는 무한집합이 러셀의 역설을 낳는다는 문제에 부딪혀 프레게의 시도는 무너지게 된다.

친숙함이 주는 함정?

전문가는 때때로 자신의 사고들에 갇혀서 풍부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친숙해짐은 현재의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새로운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함정일 수 있다.



초기 증기기관차

엄청난 위험에 노출된 운전수의 자리를 해결할 방법을 많은 시간이 흐른 후 찾았다. 이전 교통수단이던 마차의 운전수가 앞자리 바깥에 앉아있는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다.

합성, 분할의 오류 - 범주화와 고정관념.

합성의 오류

집단 구성원 하나하나가 어떠한 특성을 갖기 때문에 그 집단도 그러한 특성을 가질 것이다.

분할의 오류

집단이 어떤 특성을 갖기 때문에 그 집단의 구성원도 그런 특성을 가질 것이다.

이것은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상도 사람이니까’, ‘너는 B형이니까’, ‘그 지역 사람들을 다 그런가봐’.

인간은 정확하고 논리적이기 보다는 범주화 즉, 명사를 사용함으로써 빠르게 사고하고 판단하고자 한다. 무언가 묘사하는 것 보다 한 단어에 담는 것이 훨씬 빠르기 때문. 그래서 합성, 분할의 오류는 인간 사고의 목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철수가 사람을 죽였대.”라는 말을 듣는다면? 또는 “철수가 살인자래.”라는 말을 듣는다면?

전자의 이야기에서는 이것저것 다양한 생각이 들 것이다.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랬을까? 등 후자의 이야기에서는 철수라는 사람에 대해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살인자의 이미지를 대입해 철수는 나쁜놈이 되었을 것이다.

대중에 호소하는 논증의 오류 - 범주화를 이용한 귀납추론. 단순 노출 효과.

대중에 호소하는 논증의 오류

많은 사람들이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동의한다는 점 자체를 논거로 사용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비판적인 자세가 아닌 타인의 의견에 따르는 군중심리를 자극

공백술어 : 내가 의미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단어.

비공백술어 : 내가 알지 못하지만 의미가 짐작되는 단어.

주장이 공백술어를 포함할 때 귀납추론은 근거의 유사성, 다양성을 토대로 그 내용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주장이 비공백술어만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주장과 근거의 관계를 고려할 수 있게 된다. 많은 사람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실제로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알 것 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준다. 그렇기 때문에 주장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장과 근거의 관계를 고려하도록 할 수 있다.



결론

논리적 오류는 모르고 범하면 비판의 대상이 되겠지만, 오류의 발생 원인을 파악할 수 있고 그것을 잘 이해하여 이용할 줄 알면 오히려 심리적인 설득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 우리가 논리적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오히려 풍요로워질 수도 있고, 인간다워 지는 것 아닐까?



AJOU UNIVERSITY